

2022년 06월 2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50편 14~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37(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1장 13~22절(구약p.761)

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말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말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 ◎ 말씀선포 / 고난이 닥쳐올 때

이제 사탄은 본격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이리하여 욥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쳤습니다. 먼저 그는 재산에 큰 손해를 보았고 한순간에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14~17절을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뿐만 아니라 18~19절에서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고 말씀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그것도 동시에 옴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옴은 이토록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다운 삶의 태도를 흔들림 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의 옴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가 견지해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 1.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 옴은 자신이 당한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매우 슬퍼했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닥치면 슬퍼하며 분노하곤 합니다. 옴도 겔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수고한 모든 결과가 사라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압도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옴은 이토록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20~22절입니다. “옴이 일어나 겔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옴은 겔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겔옷은 히브리어 “메일” 인데 이 옷은 상류인이나 제사장인 입는 옷으로 그러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큰 슬픔 속에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 “예배하며” 는 히브리어 “와이쉬타후” 로서, 그 원형은 “샤하” 인데, 이 뜻은 “굽히다, 가라앉다, 풀이 죽다.” 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굽히고 낮추어 경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샤하” 즉 “예배하며” 가 “엎드리다.” 란 단어 다음에 쓰일 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다, 복종하다.” 란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옴은 그 재산과 자녀가 전멸했다는 비보를 받고 인간적으로 크게 흥분했고, 또 통분했지만 옴은 그러한 감정에 머물러있지 않고 당면한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의미로,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옴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옴과 같이 나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입술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옴은 평소의 생활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로 살았던 것이 결국 지금 인생의 크나큰 고난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옴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위로하시며 살리셨다고 증거 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 말씀하며,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말과 지식으로 깨닫고 머리로 아는 것 이상으로 삶으로 직접 체험하며, 뼈 속 깊이 깨달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고, 마침내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평탄할 때나 환난 중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복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복이나 선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났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다시 취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욥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도 욥같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 앞에 수많은 고난을 안겨줍니다. 이해 할 수 없는 상황과 견디기 힘든 고난이 매일 인생 앞에 계속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은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더욱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연약해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견딜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36(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 ◎ 폐 회 / 주기도문